

면목, 마을에 살다.



서로가 이어지는 우리 동네 면목동,
면목종합사회복지관과 주민들이 함께 한
2022년 마을활동 실천 기록

면목,
마을에 살다.

마을활동 기록 발간사

면목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영미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 나가 관계망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실천해왔습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상황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에 나가 주민들을 자주 만나고 의논하며, 이용자가 주체가 되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조직 체계를 동별 복지팀으로 개편하여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지역 기반으로 활동해온지도 6년이 지났습니다. 주민과 주민의 관계를 잇고 주민이 함께하는 활동을 거들며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함께한 활동이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실천해왔습니다. 지역과 더욱 밀착하여 일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도 바꾸며 지역에 나가 활동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들을 더 가슴 뛰게 만들었지만 주민들과 지역에서 필요한 일들을 찾아 실천해가는 과정이 수월하진 않았습니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관점을 맞추고 이후 주민들을 찾아가 자주 만나며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과 함께 지역의 일을 해나가고자 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 함께하는 일에

대한 기대도 컸고 정성과 노력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리더를 찾고 함께 협력하는 일, 일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일들이 성과와 변화들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기에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잘 쌓아오던 관계와 지역활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춤하며 맥 빠지는 시기도 겪었지만 지난 3년간도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에 꾸준히 나가 활동하며 지역에서 고립되어 지내는 분들이 없도록 관계를 이으며 지역의 돌봄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기반을 닦고자 활동하고 지원하였습니다.

<면목, 마을에 살다>에서는 2022년 면목4동, 면목7동, 면목38동에서 직원들이 주제별로 동별 특성에 맞춰 진행한 활동의 과정을 담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함께한 아이들, 어르신들, 주민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체가 되어 고민하고 함께해나간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앞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주민의 얘기에 더 귀 기울이고 돕는 역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역할을 더 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여한 주민분들이 내가 만들어내고 가꾸어가는 것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해나갈 수 있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이야기와 행동들을 해나가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해동안 주민들과 가까이서 만나고 활동거리를 만들며 지역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애써온 기록을 정리한 사회복지사 선생님

들의 열정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장감 느껴지는 글을 통해 동료 사회복지사들과 또한 지역주민들과 그 소중한 경험들을 나누며 공감하고 실천현장에서 활기차고 즐겁게 해나갈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발간사 4

면목4동

1. 주민과 주민의 관계 잇기: 주민배움터
 - 가깝지만 먼 주민 14
 - 그림책으로 동네에서 만나요 17
 - 이렇게 읽어주는 게 맞나요? 21
 - 더 많이 모이고, 그 중에 모이다 25
 - 행복터는 저에게 쉽터예요 31

2. 주민과 주민의 관계 잇기: ‘문학하는 할매’ 아이들과의 만남
 - 팝업북에 눈을 뜨다 37
 - 팝업북으로 아이들을 만나다 39
 - 크리스마스 팝업 카드를 만들다 47
 - 산타 할머니로 아이들을 만나다 49

3. 주민이 함께하는 활동 거들기: 면목아파트 주민모임 아.사.모	
- 면목아파트 주민모임 재구성하기	55
- 회원들끼리 친해져야 모임 나오는 맛이 나지요	60
- 오늘은 우리가 인사하는 날	66
- 추석 손님	70
4. 주민이 함께하는 활동 거들기: 마을 잔치 ‘가을행복’	
- 마을 잔치 기획	75
- 주민과 함께 만든 마을 잔치	76
- 소소한 마을 잔치 준비	79
- 소소한 마을 잔치 ‘가을행복’	84
- 마을 잔치 평가	93
5. 지역사회 연대하기: 이음가게 관계 이어가기	
- 우리 마을을 생각하는 궁리 시간	97
- 살맛나는 우리 동네 ‘이음가게’를 찾아 나서다!	99
- 이음가게 발굴의 의미	104
- 이음가게 ‘ㄹ사장님’과 ‘ㅇ사장님’의 통찰	107
- 이음가게와 함께하는 길 위의 배움터 ‘면담정’	112

면목7동

1. 주민과 주민의 관계잇기: 오거리공원 어르신 활동
 - 어르신과 함께하는 건강 체조 122
 -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요 128
 - 스킨답서스 화분으로 함께 공원을 가꾸요 134

2. 주민이 함께하는 활동 거들기: 오거리공원 아동 활동
 - 오거리공원 아이들과의 만남 141
 - 줍깅 정기활동이 시작되다 146
 - 어르신 체조 활동에 참여하다 153
 - 주민행사에 함께하다 157

3. 지역사회 연대하기: 지역주민 환경실천캠페인
 - 환경실천 다 같이 해보고 싶어요 167
 - 오거리공원에 퍼진 초록 물결, ‘그린이움’ 173
 - 어서 오세요! ‘팩모아 정거장’ 177
 - 종이팩으로 이어진 면목7동 183

면목3·8동

1. 주민과 주민의 관계잇기: 스마트 청춘	
- 경험에서 배운 것	190
- 어르신 마음 알기(feat. 우린 준비 됐어요!)	191
- 함께하는 즐거움, 배우는 재미	195
- 결국 관계인 거죠	200
2. 주민이 함께하는 활동 거들기: 꽃 피는 축제	
- 가정의 달 지역축제 준비하기	203
- 아동기획단을 구성하다	204
- 꽃피는 축제 기획 아동 모아 활동하기	206
- 가정의 달 맞이 ‘꽃피는 축제’ 진행	215
- 축제 평가모임	218

3. 주민이 함께하는 활동 거들기: 알음알음 재능나눔활동	
- 주민과 함께하는 재능나눔활동 기획	221
- 마을 안에서 활동 준비	224
-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재능나눔활동	228
- 재능나눔활동 돌아보기	232
4. 지역사회 연대하기: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대할까?	237
- 함께 하기 위한 첫걸음	239
- 소통하기	239
-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에서 모이다	243
- 함께여서 더 알찼던 캠페인	248

면목4동



주민과 주민의 관계잇기 : 주민배움터

권수민 주임

가깝지만 먼 주민

| 같은 동네 살지만 만나기 어려운 사람

면목4동에 있는 복지관은 면목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파트 주민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해왔습니다. 그래서 면목4동을 담당하는 복지1팀뿐 아니라 면목아파트 주민과 복지관은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나다 보니, 마을 활동을 계획할 때는 평소엔 만나기 어려운, 의도해야만 만날 수 있는 주민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복지1팀은 샘터 어린이공원을 거점으로 두고 있어서, 마을 활동을 할 때는 면목4동 어린이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린이 활동과 연계할 수 있고, 복지관에서 활동하는 시간대에 주로 만날 수 있는 주민을 떠올리다 보니 샘터공원에서 뵈 수 있는 어머님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을 활동을 시작한 후 샘터공원의 어머님들은 자주 만났지만 가볍게 만났고, 부모 교육이나 소모임도 진행했었지만, 그 이후로 또 많은 시간이 지나기도 했습니다.

“참여하는 사회복지사도 재밌게 할 수 있는 주제면 좋겠어요.” 팀 안에서 공통으로 나온 의견이었습니다. 새로운 주민을 만날 때

내가 즐길 수 있는 주제를 택하면 담당자에게 부담이 덜할 것이고, 내가 즐길 수 있기에 참여자도 즐길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렇게 ‘주민배움터’라는 이름 아래 마사지, 공예, 요리 등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주제를 신이 나서 던져봅니다.

| 어머님들을 찾아 나서다

주민배움터 주제로 흥미로운 몇 가지를 선정한 후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자 했습니다. 여기저기 홍보물도 붙였지만 직접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묻고 싶은 마음에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계시는, 학교 앞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홍보물을 들고 빠르게 오고 가는 어머님들에게 말을 걸려니 여간 빨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간 주민들과 여러 활동을 함께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 새로 하려니 어찌나 어렵던지... 이 방식 저 방식으로 물어도 물어도 대화를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 보안관도 복지관에서 한다니 관심을 두면서도 “바로 앞에서 하면 안 돼요. 조금 옆에 비켜서 해야 해요.”라며 선을 그으셨고, 함께 영업을 하는 학습지 선생님들의 능수능란한 스킬에 기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낯선 얼굴의 어머님들을 만나 복지관을 소개하고, 활동을 설명하며 몇몇 분과 인사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샘터공원에서 홍보했습니다. 홍보 배너를 두고 어머님들을 만났습니다. 평소에 하던 어린이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사업도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샘터공원에서 가벼운 안부만 나누던 어머님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샘터공원과 행복터(작은도서관) 앞 사업 홍보 배너

| 샘터공원에 생긴 좋은 변화와 위기!

그렇게 주민배움터에 함께할 분을 찾고 찾고, 관심 주제를 찾던 중에 샘터공원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공원 안에 있는 행복터(작은도서관)가 도서관으로서 체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사서도 배치되고, 상호 대차도 가능하며, 도서관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간 샘터공원 안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한 도서관이 더

활성화된다는 소식은 주민들에게도 저희에게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마을활동에는 지장이 생겼습니다. 도서관이기에 다른 이용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책과 관련된 차분한 분위기의 프로그램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도서관 자체 활동과 조정해야 하니 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정을 정하기 어렵고, 도서관 이용자를 고려해 단시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는 없어 어찌어찌 이야기가 잘 되었지만, 새로 진행하는 주민 배움터는 계획을 수정해야했습니다.

그림책으로 동네에서 만나요

| 행복터 사서님과 마음이 통하다!

그렇게 주민배움터의 앞날에 대해 걱정하고 있던 차에 행복터 사서님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안에도 작은도서관이 있기에 그를 매개로 대화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민배움터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주민 배움터에서 '배움'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주민들이 배움터를 매개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해 프로그램이 사라져도 그 관계와 활동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서님도 행복터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책에 흥미를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책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주민 주도로 지속되는 ‘선순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서로 말하는 방향이 같습니다.

책을 주제로 주민배움터를 한다면 장소 사용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뿐더러 도서관이라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고민하던 부분이 해결됩니다.

무엇보다 책은 진행자의 전문성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 참여자 주도로 이어가기 쉬운 주제입니다. 책 주제만큼이나 주제도 무궁무진합니다. 읽고 나누면 되니 크게 어렵지 않은 활동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 참여자가 역할 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고, 지속하기에도 수월합니다.

“주민배움터 주제를 책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모이시고 끝나면 도서관에 머물러서 오는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거 요청드려도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모임 후에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어요. 근데 걱정되는 점도 있어요. 추가로 활동을 권유드리는 것에 부담느끼시진 않을까요?”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도서관과 놀이터가 함께 있는 장소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 놀이터에 있는 도서관 사서님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서님이 마음이 맞는 주민을 찾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갖고 계시며 도리어 힘을 불어넣어주신 게 힘이 됐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서로 윈윈하겠는데요?”하고 인사나눴습니다.

| 그럼에도 쉽지 않은 과정

사서님이 때마침 계획하고 있는 활동은 4회기의 책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문 강사분이 오셔서 진행합니다. 이미 어머님 몇 분이 모집되어 있다는 소식에 사서님에게 제안해 드렸습니다. “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어머님들을 만나 뵈 수 있을까요? 교육 프로그램 후에 소모임을 제안해 드려보고 싶어요.”

사서님은 강사와 참여자들에게 의사를 확인한 후 다시 연락하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출석률이 낮아 어머님들을 만나 뵈거나 소모임을 제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결국 마땅한 만남을 갖지 못한 채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서님과 의 첫 협력은 이렇다 할 결실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제가 확실해지니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수월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서님과 작은도서관이 든든한 뒷배가 된 것 같아 이전보다 행동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특히 행복터가 있는 샘터공원에서 어머님들을 만나면 더욱 그랬습니다.

사서님도 여전히 함께 해주셨습니다. 도서관을 방문하는 어머님들에게 복지관의 홍보물을 보여드리며 프로그램을 권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놀이터와 도서관에 방문하는 얼굴만 알던 어머님들을 만나기도 했고, 이전에 알고 지내던 어머님들께 다시 연락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제가 구체화 되어갔습니다.

| 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책모임을 하고 싶어요

어머님들께 어떤 것 하고 싶으신지 물으면,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저에게 좋은 모임이면 좋겠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게 저에게도 편하고 좋은 일이에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작은 도서관 특성에 맞는 활동을 찾다 보니, 그림책이 자연스레 떠올랐습니다.

그림책을 읽고 책 놀이를 하면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그림책 특성상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읽고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하시는 어머님들 간 소통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행복터 사서님도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역 책 행사에 갔다가 본 활동이에요. 어머님들이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활동

하면 어머님들이 많이 모일 거예요.”

주민들에게도 물었습니다. “행복터 도서관이 작다 보니까 할만한 게 많지는 않아요.”라며 공간을 꾸준히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알 수 있었고, “그림책으로 하면 좋죠.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건 어렵는데, 교육을 듣는다거나 참여만 하는 거면 하고 싶어요.”라며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모아 모아 ‘그림책’을 주제로 주민배움터를 시작해보기로 합니다.

이렇게 읽어주는 게 맞나요?

| 그림책 강사님과 궁금증을 해소하다

자녀에게 그림책 읽어 주는 법을 배워보기로 합니다. 중랑구에서 독서법과 책 놀이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림책으로 공부시키려 하기보다는 부모와 정서적 교감을 위한 도구로 활용해야 해요.”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주며 글자 공부를 시켰는데요.” 어머님이 뜨끔해하시며 웃으십니다. 모인 어머님들의 자녀가 모두 미취학 자녀들이기에 특히나 부모와 정서적 교감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림

책으로 글자에 친숙해지기도 하지만 자녀가 ‘엄마 아빠와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기 전 부모가 먼저 읽어보며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에게 질문하며 호기심을 돋울 수 있습니다. “그림책에선 그림을 읽어줘야 한다던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미리 읽어두면 좀 낫겠어요.”

강의는 속도가 아주 빨랐습니다. 강사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이 많기도 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어머님들이 속력을 더했습니다. “그림책을 읽어주면 아이가 좀 듣다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관심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자녀가 나이에 맞지 않게 글이 적은 그림책만 읽어요. 괜찮을까요?”, “책으로 어떻게 놀아줘야 해요?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어머님들의 육아 경험에서 우리나라 고민이었습니다. 빠른 속도만큼이나 그간 궁금하신 것, 고민되시는 것이 많으셨다고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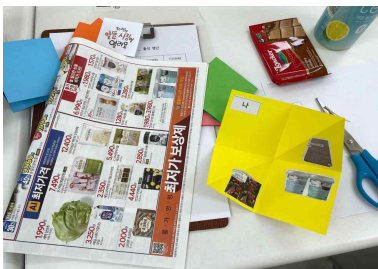
강사님에게 그림책 독서법 배우기

| 그림책 강사님과 책 놀이를 경험하다

2회차 강의에서는 책 놀이를 배우고 실습해봅니다. 책 놀이로 자녀가 그림책에 흥미를 갖도록 읽은 내용을 활용해봅니다.

“색종이, 풀, 색연필만 준비해주세요.” ‘어머님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놀이 도구를 구입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었지만 강사님이 요청하신 준비물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색종이로 미니북을 만들어 책 내용에 맞게 오리고 붙이고 꾸몄습니다. 거창하지 않은 재료로 사부작사부작 만드는 활동이라 ‘재미 없어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머님들은 어린이가 된 것처럼 집중해서 자신만의 미니북 만들기에 열중하셨습니다. 소감도 달랐습니다.



전단지, 색종이로 만든 책놀이

“전 손재주가 없어요. 근데 오늘 배운 건 집에 가서 바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제가 더 집중해서 했어요.”

쉬운 강의 덕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머님들이 얘기해주신 소감에 공감하며 이런 강의를 열게 된 취지를 전했습니다. 동네 기관(복지관, 도서관)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고민하시는 일상적 어려움(자녀 양육, 자녀와 놀이)을 해소하시길 바라는 마음,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해소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셨고 이어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주셨습니다.

그림책을 읽고, 오늘처럼 놀이 활동을 어머님들이 함께 모여 준비하시고, 집에 가서 자녀들과 놀아주는 방식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두 차례의 모임도 짬을 내어 오신 분이 계신지라, “시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임이 끝나면 바로 다음 일정이 있어서 글썩요.”

망설이시는 분도 계셨지만, 몇몇 분은 호응해주셨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더 모아보면 어떨까요?”, “시간이 되면 참여하고 싶어요.” 좋은 평에 힘입어 다음 모임을 준비해봅니다.